

#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오 학 수\*\*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와 최근의 국내회귀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 국내 생산, 고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과정 및 그것이 일본 국내외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최근 나타나는 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실태 및 향후 전망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지닐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980~90년대에 걸쳐 일본 기업은 노동집약 공정을 발전도상국에 해외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술집약 공정을 강화하는 형태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이 시기 일본 기업의 분업체계는 최종소비재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집약 공정을 아시아 지역에 이전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재나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및 생산 증가에 따라 일본 국내 기업의 생산도 증가하여 수출유발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이 국내에 역수입되는 ‘역수입효과’도 나타났다.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일본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해외 현지법인의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국내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와 일본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해외투자의 감소 및 국내투자의 증가 양상을 통해, 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회귀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지닐지에 대해 분석한다.

\* 이 글은 2016년에 발간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에서 필자가 집필한 제9장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ohhs@jil.go.jp).

## II.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수직적 분업체계’를 축으로 하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 해외 생산거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구축되었다.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는 일본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장기불황, 가격파괴에 의한 수요 감소, 아시아 지역 발전에 의한 수요 증가 역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전개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 직접투자액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약 5.5배 증가하였고,<sup>1)</sup> 그 방식은 제조업체 해외 현지법인이 더욱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 현지법인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순이익, 종업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품 등 조달액의 비중을 보면, 1997년 이후 일본의 비율이 40%대에서 20%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해외 현지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70%대까지 증가하는 등 ‘조달의 현지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부품 등 조달액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현지화가 진행되는 만큼, 동시에 제품판매의 현지화가 맞물려 진행되었다. 즉, 제품 생산 측면에서 부품 등의 조달에 대한 현지화 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 측면에서도 현지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 양상은 해외 설비 투자 지역 선정 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국가나 지역까지의 거리, 물류의 편리성’을 중시한 기업 비율이 84.6%에 달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sup>2)</sup> 이러한 ‘조달의 현지화’는 2010년까지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다.

## III. 일본 국내 제조업 일자리 변화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의 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일본 국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전체 취업자 수 기준 제조업 비율 및 일본 GDP 기준 제조업 비율 역시 감소해 왔다. 구체적으로, ‘관리적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그리고 다수의 ‘생산공정 종사자’는 종사자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그에 반해, ‘전문적/기술적 종사자’는 종사자 수와

1) 재무성, 「대외/대내 직접투자자의 추이」.

2) 일본정책투자은행(2016a).

비율 모두 증가했고, ‘사무 종사자’는 종사자 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비율은 증가하였다. 해외 진출에 따라 ‘생산공정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제품 연구·개발,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사무처리 부문의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고도전문직화’ 현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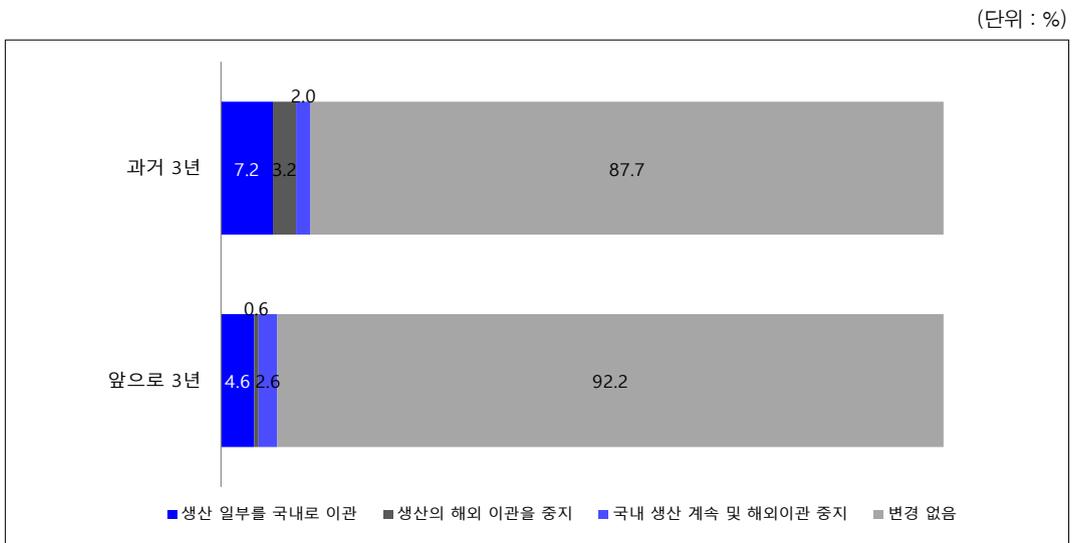
한편, 해외 설비 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해 왔으나 그 증감폭에서 최근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전년대비 해외 투자 증감률은 2008~09년 세계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증가해 왔으나 2014년에는 -0.9%, 2015년에는 -3%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였다.<sup>3)</sup>

## IV. 제조업 국내회귀의 실태와 전망

### 1. 일본 제조업 국내회귀의 실태와 요인

2016년 해외 법인을 가진 일본 제조업체의 과거 3년간 국내회귀 실태를 보면, [생산 일부를 국내로 이관]이 7.2%를 차지한다(그림 1 참조). 범위를 넓혀도 제조업의 국내회귀는 과거 3년

[그림 1] 국내회귀의 실태와 전망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2016b), 「2015/2016/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3) 일본정책투자은행(201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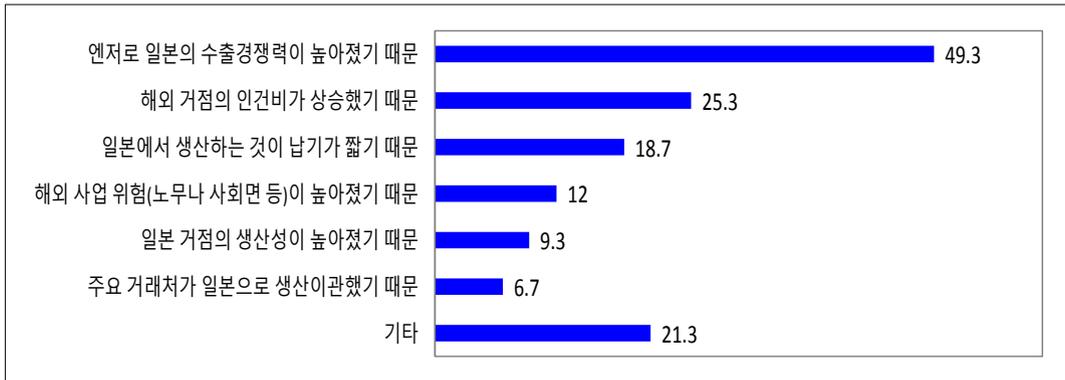
간 약 12% 정도에 불과했으며, 앞으로도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협력은행의 2015년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2013~14년 국내회귀한 기업은 9.9%, 2015년도 이후 국내회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0%에 불과한 반면, 국내회귀하지 않은 기업은 78.6%에 달했다. 일본 산업경제성의 2014년 조사에서도 과거 2년간 국내회귀한 기업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국내회귀 이유에 대한 조사를 보면, [엔저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 49.3%로 가장 높았다(그림 2 참조). 그리고 [해외 거점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25.3%)],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이 납기가 짧기 때문(18.7%)], [해외 사업 위험(노무나 사회면 등)이 높아졌기 때문(12%)]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조사의 경우, [품질이나 납기 등 해외거점에서 생산면에 과제가 있었다(3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엔저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도 채산율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24.4%)]와 [인건비 급등 등으로 해외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24.4%)]가 각각 뒤를 이었다(표 1 참조). 이와 별개로, 반드시 국내회귀라 할 수 없으나 [국내 생산 비율을 높인 요인]으로서 가장 많은 기업이 [숙련 기술자에 의한 현장력의 강함(64.5%)]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sup>4)</sup>

다음으로 일본 주요 대기업의 국내회귀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기·전자업체 파나소닉은 탁상 조리기를 중국에서 일본 고베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다른 전자제품들에 대한 국내이전도 검토 중이다.<sup>5)</sup> 다이킨 공업은 엔저와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생산의 이점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중국 기업에 위탁 생산하던 가정용 에어컨 일부를 사가 제작소에 이관하였다.<sup>6)</sup>

[그림 2] 제조업 국내회귀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자료 : 국제협력은행(2015),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2015년도 해외 직접 투자 앙케트 결과(제27회)」.

4) 경제산업성(2016), 『제조업 백서』.

5) [일본경제신문] 2015. 1. 6

6) [일본경제신문] 2015. 7. 3

〈표 1〉 국내회귀 이유

(단위 : %)

품질이나 납기 등 해외거점에서 생산면에 과제가 있었다	34.4
엔저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도 채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4.4
인건비 급등 등으로 해외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24.4
진출국의 투자규제나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3.3
데모나 자연재해 등으로 진출국의 리스크가 높아졌다	3.3
기타	10.2

자료 : 경제산업성(2015), 『2015년판 제조업 백서』.

캐논의 경우, 복사기와 프린터 일부를 국내로 이관하였으며,<sup>7)</sup> 향후 국내회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는 제조 공정의 자동화/로봇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샤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생산 일부를 일본 오사카 공장으로,<sup>9)</sup> 일본 시장용 액정 TV를 아이타 공장으로 이관한다.<sup>10)</sup> 오키데이터 그룹은 2014년부터 국내용 A3 흑백프린터 전량을 이관하였고 향후 고부가가치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국내 이관을 늘릴 계획이다. 생산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인 셀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생산하는 제품과 수량을 전 주에 확정하는 [1주간 확정 생산 방식] 체제를 도입해 단기 생산을 실현하였다. 또한 [장인 양성 매뉴얼 도입]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였다.<sup>11)</sup> 혼다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 생산해도 구입하기 쉬운 가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오토바이 생산의 국내 이관을 결정했다.<sup>12)</sup> 닛산자동차도 큐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SUV의 ‘로그’를 국내 생산하기로 하였다.<sup>13)</sup> 스킨 자동차 역시 사가라 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고 헝가리 공장의 ‘스위프트’ 소형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다.<sup>14)</sup> TDK는 국내에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생산공장을 신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sup>15)</sup>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벌브를 생산하는 케힌의 경우, 2014년 말 중국, 동남아시아에서의 생산을 일본으로 이관하였는데,<sup>16)</sup> 해외진출국의 임금인상과 기술축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LED 생산 대기업 엔도 조명은 태국 생산 제품의 20%를 국내 사노 공장에

7) [산케이 비즈니스] 전자판 2015. 1. 9

8) 캐논 홈페이지(<http://web.canon.jp/corporate/vision/greeting.html>).

9) [경제/비즈니스 Nippon.com] 전자판 2015. 4. 10

10) [요미우리신문] 2015. 1. 6.; [산케이뉴스] 전자판 2015. 1. 22

11) [오키테크니컬 리뷰] 2015년 5월 제225호 Vol.82 No.1.

12) [동양경제] 전자판 2015. 9. 20

13)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2. 2

14) [산케이신문] 2015. 10. 3

15)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2. 26

16)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4. 6

이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엔저로 인한 해외 생산의 채산성 악화를 들 수 있다.<sup>17)</sup>

이를 통해, 일본 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의 국내회귀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엔저이다. 미국 1달러당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외국에서 생산하고 일본으로 역수입한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둘째, 일본과 아시아 진출지역과의 임금격차 축소이다. 일본의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진출지역의 임금은 상승하여 일본 국내 생산의 인건비 단점이 해소되었다. 셋째, 납품의 단기화/최단화이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주말에만 주로 판매되던 때와 달리 통신 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의 급성장에 따라 판매가 항상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그에 맞출 수 있는 물류시간 단축이 요구되었다. 넷째, 일본이 최적 생산기지라는 점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유출, 모조품, 기술자 확보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섯째, 공정의 완전 자동화이다. 일본 기업의 완전 자동화/로봇화 기술이 뛰어난 데다, 인건비 격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기에 국내회귀 가능성을 높인다.

## 2. 국내생산 비율을 높이는 요인

이와 관련해, 제조업 국내회귀와 직결된 국내생산 비율을 높이는 요인을 보도록 하겠다. 국내생산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숙련기능자에 의한 현장력의 강함(64.5%)], [전력 비용의 저하(57.7%)], [공장 노동자를 확보하기 쉬움(57.1%)], [고도 기술자를 확보하기 쉬움(54.3%)], [엔화 약세 기조(53.7%)] 순으로 나타났다.<sup>18)</sup> 또한, 국내 생산거점의 향후 역할에 관해서는 [해외 거점과 차별화를 피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기업이 62.2%, [생산거점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대답이 33.0%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거점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의 거점 역할(38.6%)], [해외로의 생산기술·공장 지원을 하는 모(母)공장 역할(32.1%)],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장 역할(13.3%)]을 예상하였다.<sup>19)</sup> 나아가 해외 생산거점을 가진 기업에 있어 국내 생산이 지닌 장점의 경우, 주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대응(46.8%)], [단기 납품에 대한 대응(42.5%)], [거래처의 니즈 파악 용이(42%)], [거래처의 개발단계 참가 가능(37.2%)] 등 생산 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이 꼽혔다.

국내 생산의 우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향상이 중요하다. 이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통한 국내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비용, 높은 법인세 등에 대한 비용 절감이다. 셋째, 기술혁신이다.<sup>20)</sup>

17)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1. 14

18) 경제산업성(2016), 『2016년판 제조업 백서』.

19) 경제산업성(2015), 『2015년판 제조업 백서』.

특히 IoT나 4차 산업혁명처럼, 제조업 기업이 소비자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신속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국내회귀의 한계점

제조업의 국내회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에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제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지산지소(地産地所)·최적지 생산(시장이 있는 곳에 생산거점 구축)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내수가 확대되어야 제조업의 국내회귀가 용이하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은 국내회귀 전망을 어둡게 한다.<sup>21)</sup> 둘째, 제조업의 국제적 분업구조의 확립이다. 제품 생산이 일본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부품의 대량생산은 외국에 거점을 두고 하거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엔저가 진행되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다. 셋째, 국내회귀가 가능한 제품은 일본 국내시장용 제품,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 공정의 전자동화가 가능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8년간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률(4.11%)과 해외 현지 법인의 이익률(4.75%)에서 드러나듯, 국내 제조업의 이익률이 해외보다 낮다.

국내회귀를 하지 않은 기업에 그 이유를 묻은 결과, [해외와 국내의 분업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서(54.7%)]가 가장 많았고, [지산지소이므로(38.4%)], [주요 거래처가 일본으로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26.5%)]이 뒤를 이었다.<sup>22)</sup> 또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대기업들에 국내회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해외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79.2%)]이 가장 많았고, [해외 생산이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어서(34.8%)], [해외 생산거점의 가동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25.4%)]가 뒤를 이었다.<sup>23)</sup>

## V. 제조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해외 생산거점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생산거점의 사업운영상 장점으

20) 하마구치(2015).

21) 시모다(2015).

22) 국제협력은행(2015),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2015년도 해외 직접 투자 앙케트 결과(제27회)」.

23) 일본정책투자은행(2015), 「2015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로는 [코스트 삭감(66.8%)], [현지에서 판로 확대(56.3%)], [기존의 거래처 유지(36.7%)], [국내외 판로 확대(25.7%)], [현지 살아 있는 정보 수집(20.5%)] 등이 꼽혔다.<sup>24)</sup>

반면, 해외 현지 법인의 상거래상 과제/리스크로는 [품질관리(54.3%)], [현지 마케팅(34.3%)], [현지에 맞는 상품의 생산/공급체계의 구축(28.6%)], [현지 수요 파악과 정보수집(23.9%)], [현지의 거래조건(23.8%)], [자금조달(2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사업환경상 과제/리스크로는 [인건비 상승(60.5%)]이 가장 많았고, [환율 변동(49.6%)], [현지 인재의 확보/육성/노무관리(48.8%)], [법 제도/규제의 복잡/불투명(45.2%)], [경제정세의 변화(31.3%)], [정세불안/자연재해(24.6%)] 등이 뒤를 이었다.<sup>25)</sup>

중소기업 중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국내 고용도 지속해서 증가하였지만,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내 고용도 감소하였다.<sup>26)</sup>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일본 국내 근로자 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그 투자를 통해 국내 근로자를 늘린 요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주로 거점 설립 단계 지원, 그 후 기술지도에 관련된 종업원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직접투자한 중소기업이 국내 거점과 해외 거점에 어떤 분담을 하고 있는지 보면, 고도 기술, 고부가가치, 납기가 짧고 생산단위가 적은 제품일수록 국내 거점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2008년 해외 거점을 철수/이전한 이유를 보면, [수주처, 판매처의 개척/확보의 곤란성(31.1%)]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sup>27)</sup>

## VI. 맺음말

일본 제조업체들이 급격한 엔고현상에 대응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한 이후, 직접투자액과 현지 법인 수, 현지 법인의 매출액, 현지 법인의 근로자 수 모두 대폭 증가해 왔다. ‘조달의 현지화’에 따라 생산네트워크의 현지화도 이루어졌으며, 판매 부문에서는 ‘주변 지역 포함 현

24)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해외전개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조사(중소기업청 위탁조사)」.

25)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해외전개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조사(중소기업청 위탁조사)」.

26) 경제산업성(2012), 『중소기업백서』.

27)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사업 활동 실태조사」; 경제산업성(2012), 『중소기업백서』에서 재인용.

지화'를 통해 현지 법인의 국가 및 주변 지역의 판매액 비중이 높아졌다. 그에 반해,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까지 거의 일관되게 감소하였고 전체 취업자 내 비중도 줄어들었으나, 2012년 이후 약간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 과정에서 취업자 구성 역시 생산 공정 종사자는 감소하고 전문적/기술적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한편, 2012년 이후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는 해외 법인을 가진 제조업체의 약 10%가 일본 국내로 생산 일부를 이관하는 '국내회귀' 현상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국내회귀는 엔저로 일본과 해외 법인의 인건비 격차가 줄었고, 현지 법인의 품질, 납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타났다. 그 제품 범위도 일본 시장용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생산/납품의 단기화/최단화가 요구되거나, 고품질/고부가가치이고,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로 생산되는 제품에만 국한되었다. 국내 생산거점은 이노베이션이나 해외공장 지원의 모(母)공장,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생산/납기의 단기화가 요구되는 제품 생산 등 해외 현지 법인과 구별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내회귀도 이러한 국내 생산거점 역할에 부합되는 경우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회귀는 한정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본 국내 수요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 생산의 국제 분업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점, 국내 이익률이 해외 현지 법인 대비 낮다는 점은 향후 국내회귀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도, 해외 생산거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 의한 국내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현지 법인을 철수/이전한 기업도 있는데 주된 이유는 [수주처, 판매처의 개척/확보의 곤란성], [생산/품질관리 곤란성], [생산 비용의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국내회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본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진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엔고와 무역 마찰, 국내 수요 감소와 해외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수요 증가를 노린 측면이 강한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조달의 현지화'에 따른 생산네트워크의 현지화가 이뤄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양상 및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그 가운데 연구/개발의 기술전문직, 본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직 비중은 증가한 바 있다. 넷째, 제조업 국내회귀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내회귀는 국내 시장용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내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상승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점에서 일본보다도 제조업 국내회귀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단기적인 제조업 국내회귀 전망 및 대응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국내회귀 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KLI**

## [참고문헌]

경제산업성(2012), 『중소기업백서』.

\_\_\_\_\_ (2015), 「제45회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개요」.

\_\_\_\_\_ (2016), 『2016년판 제조업 백서』.

국제협력은행(2015),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 - 2015년도 해외 직접 투자 앙케트 결과(제27회)」.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해외전개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조사 (중소기업청 위탁조사)」.

시모다 유스케(2015), 「국내회귀로 보도되고 있는 움직임을 어떻게 볼까 - 일부 플러스 효과도 외주를 축으로 한 최적지 생산이 기업의 기본전략」, 일본총연 [Research Focus] No.2014-057(下田裕介(2015), 「『国内回帰』と報じられる動きをどうみるか—一部プラス効果も外需を軸とした『最適地生産』が企業の基本戦略—」, 日本総研, 『Research Focus』 No.2014-057).

오학수(2016),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조성재 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정책투자은행(2015), 「2015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_\_\_\_\_ (2016a), 「2015/2016/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_\_\_\_\_ (2016b), 「특별 앙케트: 기업행동에 관한 의식조사결과(대기업)」.

재무성, 「대외/대내 직접투자의 추이」.

하마구치 신메이(2015), 「제조업 취업자 1000만 명 밀돔 - 국내회귀 촉진, 미국에 배워라」, 일본경제신문 2015년 3월 21일자(浜口伸明(2015), 「製造業就業者1000万人割れ—国内回帰促進、米國に學べ」, 『日本經濟新聞』 2015年3月21日).